



정혜 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주임신부: 최송근(비 오) ☎ (916) 207-4806(C)
 본당부제: 김병준(바 오 로) ☎ (217) 352-2487(C)
 본당부제: 김상돈(도 미 닉) ☎ (916) 580-8519(C)
 사목회장: 김용문(요 한) ☎ (916) 903-6702(C)
 총무부장: 김재열(스테파노) ☎ (530) 771-7715(C)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 (916) 368-9204 Fax (916) 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다니엘 12:1-3** 제 2 독서 **히브리서 10:11-14,18** 복 음 **마르코 13:24-32**

화답송



자비로운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찬미예수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마흔 여덟 번째 맞이하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평신도 주일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주님께서 평신도들에게 바라시는 평신도 사도직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1968년 한국주교 회의에서 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평신도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중에 성직자를 제외한 모든 신앙인들로서, 세례성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성직자와 더불어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언하고 복음을 선포할 사명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평신도는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더불어 친교를 맺으며 기쁨과 희망과 평화를 향해 주님의 발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교구는 지난해부터 2년에 걸쳐 선교의 해를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선교의 시작해로서 용기와 기대를 안고 본당마다 선교위원회를 중심으로 열정적으로 움직였고 결과는 2010년 이후 하향곡선을 그리던 세례자 수가 5년 만에 반등을 하였습니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 열정이 조금은 식고 에너지도 줄어들어 주춤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선교열정이 우리 기분에 따라 확 달았다가 식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해야겠지요.(2티모 4,2참조) 그리고 선교를 사명으로만 생각한다면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느낀 하나님의 자비를 이웃이 함께 느끼도록 해 주자고 하면 마음과 발걸음은 가벼워집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루카 6,36)는 말씀처럼 물질적으로 가난한 이에게는 기본적으로 베풀어야 하고 물질의 풍요 속에도 영적으로 가난한 이가 의외로 많음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움은 약한 마음과 영혼의 병을 치유해 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너무나 익숙하여 다 아는 것이지만 진리는 실천적 삶을 토대로 하기에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자비로 말하고 모든 연민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마태 9,36)

돈의 노예였던 자캐오와 마태오가 오직 세상 것에서만 행복을 찾던 간음한 여인과 막달라 여자에게 자유를 주셨고, 주님을 배반한 베드로를 눈물 짓게 하셨고 회개하는 도둑에게 천국을 약속하신 그 자비를 우리도 삶에서 수없이 입고 있음을 깨달고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의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자비 그 자체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성경말씀을 들려주고 잊고 있었던 것을 깨우쳐 주고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자비를 우리도 실천해야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모두가 자기 일에만 몰두하여 술이 떨어진 사실을 몰랐으나 아들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려 난처하고 당황스러웠을 주인을 어려움에서 구해주신 성모님의 자비를 본받아 우리도 이웃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눈여겨보고 보살펴야겠습니다.

신앙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고 신앙을 의심하는 이들에게 조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용서하고 참고 견디고 베푸는 사랑의 실천인 자비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비롭고 연민 어린 사랑을 드러내 보이느냐에 따라 교회를 신뢰하는 정도가 정해집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홀로 버려진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지 못하거나 용서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가 더욱더 잘 드러납니다. 우리 안에 심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아야 합니다.(「자비의 얼굴」 참조)

복음의 핵심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입니다.(요한 3,16-17참조) 형제를 향한 따스한 얼굴 그것이 바로 자비의 마음입니다.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비에서 배제될 수 없음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자비의 몸짓은 주춤하거나 멈출 수 없을 것이고 우리는 기쁘고 떳떳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이며 진정한 행복을 만날 것입니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마태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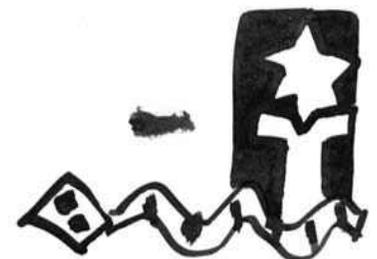
천주교 안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 이한양 그레고리오

간
장
종
지

숨은 뜻

어디든 골고루 햇빛 뿌리고
 오늘의 그늘이 내일 양지로
 오늘의 겨울이 내일 봄으로
 알아냈다
 그럴 만한 뜻 숨어 있는 것을

클레멘스·시인 / 김복태 사도 요한·화가



(신앙생활)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위령성월에 되새겨 보는 대사(大赦)

“가톨릭교회는 위령성월, 특히 위령의 날인 11월 2일을 전후해서 1일부터 8일까지 열심한 마음으로 묘지를 방문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우는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다. 그리고 이 전대사를 연옥에 있는 이들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가르치며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권한다.

가톨릭 신자라면 누구나 잠벌(暫罰)이며 대사(大赦)에 대해 들어 보았을 것이다. 중대하고 심각한 죄를 지은 신자는 고해성사를 통해 그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 신자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 진정으로 뉘우치며 사제에게 고백하면, 사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죄를 용서한다.

그러나 죄는 용서되더라도 짓값, 곧 그 죄에 따라 치러야 할 벌은 남는다(잠벌). 그리고 잠벌을 해소하지 못한 채로 죽으면 연옥에서 그것을 다 기워 갚아야 한다. 그런데 교회는 특정한 조건에 맞는 선행을 함으로써 잠벌을 없애거나 감면받을 수 있게 해 주었다(대사).

한편, 교회는 하늘의 성인들과 이승의 신자들과 연옥의 영혼들이 공로를 공유할 수 있는(모든 성인의 통공) 공동체다. 그러기에 이승의 우리는 연옥의 영혼에게 우리가 받은 대사를 양도할 수 있다.

(중략)

교회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죄의 대가를 돈으로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이 한때의 부끄러운 행적을 교회는 이내 바로잡았다.

다시 중심을 잡은 교회는 대사의 남용을 규제하였다. 교회법에 규정되어 있던 엄한 보속을 폐지했다. 20세기에 들어서 바오로 6세 교황은 대사에 대한 법을 제정하여 대사의 의미와 규정을 명확히 했다. 이제 신자들이 대사를 받기 위해 해야 할 의무들이 많이 완화되었다. 고해성사를 보고, 영성체를 하고, 성당 참배를 하고, 교황의 뜻이 이뤄지도록 기도하면 대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직도 우리가 ‘대사’라고 일컫는 용어를 다분히 악의를 담아 ‘면죄부’라고 곱씹는 이들이 있긴 하다. 하지만 우리는 대사가 벌의 사면에는 효과가 있지만 죄 자체를 용서하지는 못하며, 우리에게는 죄를 용서하거나 보속의 짐을 덜어줄 어떠한 권리도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안다. [월간 레지오 마리애, 2015년 11월호, 이석규 베드로]

✦ 함께 기도해 주세요.

주님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 받으시기를 주님께 청합니다.

- 윤안나/ 황애다/ 원정은 카타리나/성낙순 요안나(건강)
 - 잔 페리/백정심 막달레나.전기례 베레나(건강)
 - 김 미나미 로사/우순옥 소피아/김옥륜 세실리아---(건강)
 - 추소연 세실리아/엄 안드레아/서향자 글라라(건강)
 - 김초지 마리아/김미숙 모니카/최기소 바오로(건강)
 - 황순이 마리아/안병목 그레고리오/최이주 베아따(건강)
 - 최순범 사비나/김숙자 수산나/고희석/김용옥 세레나/(건강)
- 본당주부에 공지하여 기도를 부탁하실 경우, 구역장님을 통하여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미사 지향(미사신청 ☎ 박 율리아 990-6531, 최 클라라 821-9354)

종류	지향	봉헌자	종류	지향	봉헌자
연					
연					
연					

일 자	전례력	미사 시간	지난주일	
11월17일(화)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 수도자 기념일	오후 7:30	교 무 금 주 일 헌 금	\$ 2,325.00 \$ 1,048.00
11월18일(수)	연중 제33주간 수요일	오전 7:30	토 요 특 전 교 구 원 캠페인	\$ - \$ 200.00
11월19일(목)	연중 제33주간 목요일	오후 7:30	성 소 후원금 사회복지 후원금	\$ 125.00 \$ 140.00
11월20일(금)	연중 제33주간 금요일	오후 7: 30	종교서적 및 성물판매 기타수입(사제관건축에 지출했던 것 다시 되돌려 받음)	\$ 248.00 \$ 12,270.00
11월21일(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자헌 기념일	오후 7:30	사제관 건축 합 계	\$ - \$ 16,356.00
11월22일(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	오전 9:00 오전 11:00	미사 참례	성인 명 학생 명

교무금 내신분 감사합니다 ! 6~12월 이정자 7~8월 현창균 8월 김은경 이원건 9~10월 정두용 10월 윤태욱 임원호 지영욱 11월 윤재경 우순이 구준모 이재덕 박을생 김운태 최이주 안강순 허용희 전기례 지복원 김배국 박용호 김병준 이정규 박정희 12월 김옥륜 이재성 11~12월 황성연

(공동체 소식)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1구역(FE), 2구역(FO), 3구역(PC), 4구역(NH), 5구역(GF), 6구역(RC), 7구역(RT), 8구역(NC), 9구역(EG), 10구역(DW)

◆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1. 지속적인 전교를 합시다

- ◆ 예비신자 교리반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8시)
- ◆ 문 의 : 류승교 바오로 전교부장(916)708-6102

2. 봉성체(병자 영성체) 신청

- ◆ 주-신부님/ 셋째 주-부제님
- ◆ 박 율리아 전례부장 또는 사무실

3. 잠비아 어린이 돕기 도서 및 장난감 도네이션

- ◆ 영문으로 된 책이나 장난감을 도네이션 받습니다.
- ◆ 2016년 2월 말까지 성당으로 가져오세요.

4. 2차 헌금 -11월 21,22일 (토,일) 있습니다

- ◆ 'Catholic Campion For Human Development'

5. 성령 찬미 미사 및 성시간

- ◆ 일시 : 20일(금) 7시 30분
- ◆ 신앙체험 발표 : 이주연(크리스티나)
- ◆ 율피정이라 생각하시고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6. 본당 사무장으로 일할 사람을 찾습니다!

- ◆ 근무조건: 주4일 근무(목,금,토,일 - 하루 5시간씩)
- ◆ 문 의: 본당신부(916-207-4806)/사목회장(916-903-6702)

7. 65th St. Mary's Cemetary 묘지 매매

- ◆ 명당자리 가격(\$5,992 +\$300)
- ◆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916-813-4440 (고원석 바오로)

8. 성가대

- ◆ 성탄 성가 연습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미사 후 오후 1시-3시 까지 합니다. 함께 하고 싶은 모든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9. 사제관 건립 기금 마련 김장김치 판매 !

- ◆ 11월 22일, 12월 6일
- ◆ 김병길 베드로 형제 배추 100포기 도네이션, 본당 신부님 발 배추로 김장을 합니다. 선착순 주문 받습니다. 여성부

10. 교구 The One Campaign 모금 참여하기

지난주까지 The One Campaign 봉헌자는 총 101명입니다.

지난주 The One Campaign 봉헌금	총 누 계
윤재경 알베르토(\$200)	\$42,145.00

11. 성전 건립기금 및 목주기도 현황

지 난 주 봉 헌 금	총 누 계
-	\$65,734.21

지난주 목주기도 봉헌	총 누 계
1395단	2846,068단

12. 감사합니다!

- ◆ 이번주 점심봉사 : 10구역 보조 : 장순욱 스테파노
- ◆ 다음주 점심봉사 : 하상바오로 보조 : 최응철 레오, 김재숙

13.사회복지부 - 사회복지부에서 노숙자들을 위한 캠프드 도네이션 받습니다. 연말연시 따뜻한 사랑을 이웃과 나누도록 합시다.

지구 & 교구소식

- ◆ 교미시움 회합 : 15일(일) 미사 후 성당
- ◆ Pr 간부님들은 참석 바랍니다.

모임 안내

- ◆ 리노공소 : 15일(일) : 2시 30분 출발
- ◆ 사목회 : 16일(월) 저녁 7시 Samurai Sushi
- ◆ 울뜨레야 : 18일(수) 저녁 7시 45분 성체조배후 엘리사벳 방
- ◆ ME 모임 : 21일(토) 오후 6시 김병준 바오로부제님 맥
- ◆ 1326 Commons Dr. Sacramento Ca 95825
- ◆ 사회복지부 : 15일(일) : 미사후 요한 방
- ◆ 베이비시터 구합니다. (7:30A.M-5:30P.M)
- ◆ 연락처 408-250-6620 (김데레사)

주일 /한글학교

- ◆ 재능기부 하실 분 모집 합니다
- ◆ 서예, 민속놀이, 사물놀이 동양화 고전무용 등등
- ◆ 연락처 : 오민정 크리스티나 (한글학교 교장) (213)700-0051
- ◆ 주일학교 문의 : 이미경 아네스(530)906-0265 annleerp@gmail.com

전례봉사	11월 15일	11월 22일	11월 29일	12월 6일
해 설	임상일(프란치스코)	이혜련(데레사)	김은선 (제노베파)	김은영 (폴리나)
1 독서	원영일(미카엘)	이강덕(시 문)	신흥재 (야고보)	이원건 (사도요한)
2 독서	원헤레나(헬레나)	이재정(젬 마)	신부순(데레사)	이인숙 (세실리아)
복 사	윤성훈(가브리엘) 송돈희(요 셉)	양경민(안드레아) 류승교 (바오로)	원영일(미카엘) 이주순(율리오)	김재열 (스테파노) 이대원(베드로)
봉헌/기도/청소	7RT~8NC	7RT~8NC	7RT~8NC	9 EG~10DW
헌금위원	송돈희 임상일	전비아 김미해	이나숙 정의주	장석자 고원석

(광고)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주보 제작

최원숙 클라라 ☎(916)821-9354 E-Mail:choiclara@inbox.com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상해/자동차/집/건강 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 CA 95827 ☎ (916) 362-3300 Cell (916) 475-3770</p>	<p>지도 (Creative Art Class) 서양화전공.오랜경험.성실히 (대상:5세~12학년) 4528Jan Dr.Carmichael, CA 이완순 안나 ☎(916)396-6219</p>	<p>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 (916) 548-3278 (916) 362-330</p>	<p>East WestTravel (동서여행사) 9527 Folsom Blvd.Suit #A Sacramento, CA 95827 김 지나 ☎ (916) 362-0260</p>
<p>·음자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9299 E. Stockton Blvd.Ste.40 Elk Grove, CA 95624 Titan R. E. Services 서주연(마리아) ☎ (916) 271-3671</p>	<p>SNOW WHITE DENTAL 6416 Tupelo Dr. Cirtus Heights, CA 95621 장원석(바오로) ☎ (916) 729-1441 한국어(916) 230-6768</p>	<p>제인 안 변호사 파산법 전문 (, 사업법, 모기지 등 각종 채무상담) U.C. Berkeley School of Law, JD 2005 De La Cruz Blvd.Ste 281 Santa Clara, CA 95050 ☎ (408) 982-0999</p>	<p>서은미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8525 Madison Ave. #122 Fair Oaks, CA 95628 서은미(안나) ☎ (916) 860-3873</p>
<p>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 린(클라라) ☎ (916) 342-7072</p>	<p>Exigo IT Solution 컴퓨터수리 Laptop.Desktop. IT services 김동현 (미카엘) e-mail: support@exigoits.comweb add.:www.exigoits.com ☎ (916) 287-1439</p>	<p>1.2.3AutoBody/정비 10170 Croydon Way #F Sacramento, CA 95827 이호영(호영베드로) ☎ (916) 366-0123</p>	<p>JIMMY KIM GOLF SCHOOL ~Sunrise Golf Course~ 6412 Sunrise Blvd. Citrus Heights CA 95610 Jimmy Kim(안토니오) ☎ (916) 605-6974</p>
<p>도움이 필요하신 서류는 미리 예약을 하시고 주말날 성당에서도와드립니다 락:전비아 (916)548-7132 이플로렌시아(916)176-1834 사 회 복 지 부</p>	<p>ShoGun Sushi 7330 Fair Oaks Blvd., Carmichael, CA 95608 길성진 베드로 ☎(916)483-1224</p>	<p>Law Office of Daniel S. Lee 2720 Gateway Oaks Drive, Suite#140. Sac, Ca 95833 (직장상해법.상해보상.장애사회보상) 변호사: 이진아 (막달레나) danleelaw@gmail.com ☎(916)922-0107</p>	<p>최병엽공인회계사 Paul Choi&Associates Inc. 9521 Folsom Blvd.suit P Sacramento, 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 (916) 363-2345</p>
<p>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 95742 신영후(토마스) ☎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radshaw Optometry 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 (916) 361-2020 Fax(916) 361-0433</p>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건강 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 CA 95827 ☎ (916) 362-3300 Cell (916) 475-3770</p>	<p>한국위성방송 한국방송(MBC, MBC Everyone,SBS, SBS Plus, YTN, CTS, EBS, Radio Korea, OBS, TBS,CBSBadook)+ (Direc TV) "무료설치" 권영일(프란치스코) ☎ (916) 370-5441</p>